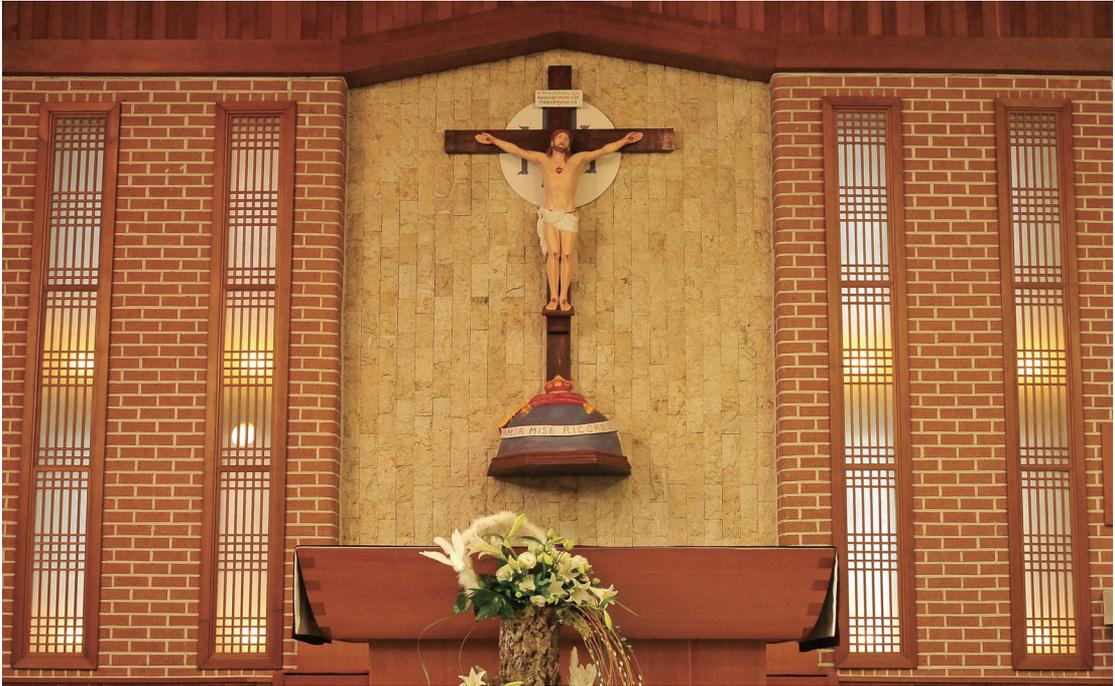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연중 제24주일 2016.9.11.(다해) 제2016호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본리성당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루카 15,10)

우리는 지금 자비의 희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방탕한 아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오로를 사도로 부르시며, 회개하는 죄인을 반기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1독서 탈출 32,7-11,13-14 **제2독서** 1티모 1,12-17 **복음** 루카 15,1-32.

입당송 주님,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당신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화답송 ◎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영성체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소홀했던 가족이나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

소요한 요한 신부 | 성북본당 주임

어떤 사람이 수도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느님은 과연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까요?” 그 수도자는 잠시 묵상한 후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만일 당신의 옷이 찢어진다면 그 옷을 버리 십니까?” 그 사람이 “고쳐서 입어야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자기 옷을 그렇게 아끼는데,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당연히 죄인들을 얼마나 아끼시며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하느님께서서는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하는 하느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목숨을 바쳐서 찾아내는 목자이시며 은전한 낚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샅샅이 뒤지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느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잘못을 뉘우치고 되돌아온 작은아들과 동생을 거부하는 큰아들까지도 모두 아끼시는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계시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러한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을 받아 회개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날 일들을 비유 끝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는, …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루카 15,7)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루카 15,10)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루카 15,24)

또한 예수님은 하느님과 함께 기뻐하는 하늘과 천사들과 더불어 큰아들과 우리도 함께 기뻐해 주기를 바라시며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루카 15,6,9)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루카 15,32)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자비의 특별 희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잃었던 사람들을 다시 찾으신 하느님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사랑의 이중 계명인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자기 옷을 그렇게 아끼는데,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당연히 죄인들을 얼마나 아끼시며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겠습니까?” **▶▶▶**

가정, 가장 작은 교회

새로운 가정 공동체의 시작

강영목 요한보스코 신부 | 교구 가정담당

가정은 혼인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혼인을 통해 부부가 됨으로써 한 가정이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혼인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꽃을 들고 예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예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혼인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사이며, 새로운 가정 공동체의 시작인 것입니다.”(2015년 5월 6일 일반알현 중)

현재 교구 가정사목담당 주관 아래, 매월 셋째 주일마다 예비부부를 위한 가나 혼인강좌가 계속 실행 중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가정의 위기와 어려운 현실을 미리 예측하고, 가정의 시작인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필요성과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가정의 현실은 저출산 문제, 혼인 가치가 상실되는 상황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직면해서, 혼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들여다보고 가정을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교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가나 혼인강좌입니다.

교황님께서 『복음의 기쁨』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혼인은 본래 덧없는 사랑의 감정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완전한 일치룰 이루겠다고 동의한 배우자들이 맺은 확고한 계약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66항)

인간적인 감정만으로는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희생과 노력, 그리고 상호 간의 헌신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것이 바로 혼인입니다. 그런데 수학적으로 둘이 하나가 되려면, 결국 서로 양보하고 나누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연습과 노력은 결혼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에게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 강좌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첫 기적이 이루어진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가정의 시작인 혼인을 축복해 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평생에 한번, 단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혼인강좌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한 가정에 커다란 내적인 힘이 되고 참된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혼인준비로 잠시 잊었던 두 사람의 사랑의 마음이 다시 불타올라 행복한 성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가길 기도합니다. 이번 달에도 수료증을 받아들고 환히 웃으면서 두 손 꼭 잡고 떠나가는 예비부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로**

2016년 대구대교구 가나 강좌

시간: 매월 세 번째 주일,

오전 9:30 - 오후 5:00(시간엄수)

장소: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강당

회비: 1인당 2만원(점심 및 교재 제공)

문의: 교구 가정담당, 053-250-3114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신대현 요셉 신부 | 동천성당 보좌

시간이 흐를수록 오늘날 사회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종류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각 분야 안에서도 1년 넘게 유행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난 10년을 신학교에서 살고, 보좌신부로 발령을 받아 본당에 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정말이지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생들이, 청년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 자체는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람은 한 자리에 그대로 안주할 때 정체되고 맙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찾아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새로운 것’들이 마치 인스턴트 음식처럼 자극적이고, 짧은 시간 안에 바람처럼 불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참으로 소중한 것들이 배제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옷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옷을 사면서, “아, 이 옷은 유행을 타는 옷이야.” 혹은 “이 옷은 유행을 타지 않겠어.”라고 말합니다. 유행을 타는 옷과 유행을 타지 않는 옷, 유행을 타는 옷은 시간이 흐르고 또 유행이 바뀌게 되면 다시 입기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유행을 타지 않는 옷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당장 화려함은 없을지라도 ‘옷으로서의 기능’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유행을 타지 않는 옷’일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해 나가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틀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그 문화가 계속해서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 ‘나눔과 겸손’, ‘희생’, ‘믿음’ 같은 것들입니다.

어느 시대에서도, 어느 문화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런 가치들은, 우리가 ‘새로운 것’과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할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2천 년이 지났지만 결코 유행을 타지도, 변하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필문**



재미있는 교회 상식

기도의 종류 II

어떤 기도든지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느님을 사랑하고 찬미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기도가 바치는 형식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기도

소리 기도는 말 그대로 소리를 내어 기도문을 정성껏 바치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문을 외워서 바친다고 해서 염경(念經) 기도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리 내어 하는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정해진 기도문을 혼자 또는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소리'는 하느님께 건네는 '말'입니다. 또한 기도는 '말'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따라서 소리 기도를 바칠 때는 정성을 다해 온 마음으로 바쳐야 합니다.



묵상 기도

겉으로 소리를 내어 하는 기도가 소리 기도인 반면에 침묵 중에 하느님 말씀을 듣고 하느님 뜻을 새기며 마음으로 바치는 기도를 묵상 기도라고 합니다. 묵상 기도의 목적은 '삶의 현실에 비추어 고찰한 주제를 신앙을 통해 우리 것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723항). 묵상을 할 때는 보통 묵상자료를 이용하는데 성경을 비롯해서 전례기도문, 신심서

적이나 성화, 성상 등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와 같은 기도가 묵상 기도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관상 기도

예수의 성녀 테레사는 관상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자주 단둘이 지냄으로써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관상 기도는 침묵 중에 하느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바라봄으로써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을 완전히 비워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관상 기도는 하느님의 선물이며 은총입니다. 관상을 통해 하느님께 집중함으로써 우리를 더욱 겸손하고 관대하게 하며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화살 기도

이밖에도 '화살이 날아가는 짧은 순간을 이용해 간략하게 바치는 기도', '화살처럼 직통으로 하느님께 가는 기도'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화살 기도가 있습니다. 영혼의 활을 당겨 하느님께 쏘아 올리는 화살기도는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와 같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께 순간적으로 바라는 생각을 짧게 바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평범한 생활, 단순하고 단조로운 생활 안에서 기쁘게 살고 싶다면 화살 기도를 자주 바치라고 권하셨습니다. **▶▶▶**

교구 행사

■ 흥창익 신부 사진개인전



옥계성당 주임 흥창익(비오) 신부의 사진개인전 “기억(La Memoria)” 개막식이 9월 2일(금) 오후 7시 30분 남산동 샬트르성바로수녀회 내 예담갤러리에서 열렸다.

■ 관덕정 병인순교 150주년 미사



사진제공 : 월간 <빛>

병인박해 150주년을 맞아 9월 3일(토) 오후 4시 30분 관덕정순교기념관에서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순교복자비 제막식 및 기념 미사가 봉헌되었다.



고성성당 새성전 건립 기금 마련 뮤지컬 <서울할망 정난주> 공연

일시: 9.23(금) 19:30 / 9.24(토) 15:00, 19:30 / 9.25(일) 16:00

장소: 오페라하우스 문의: 고성성당, 352-1412

사이비 신종교와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 근래 들어 성모당과 각 본당에 **신천지** 신자들이 출몰하여 신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신자여러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에서 금하는 **나주 율리아** 관련 모임에 참여하거나, 관련 장소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성규 엘리시오



행사 | 모임

9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9.25(일) 14:00
 유의: 추석연휴 관계로 날짜 변경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교구 도보성지순례 및 미사
 일시: 9.24(토) 10:00 / 미사 14:00
 코스: 가산산성주차장~한티성지
 접수마감: 9.13(화)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7

가톨릭미용인회 빛모임
 일시: 9.26(월) 20:00
 장소: 교구청 가정사목담당(대건관 2층)
 대상: 가톨릭신자 미용인 모든 분
 문의: (010)6560-3086

제30차 교구 올드레아
 일시: 10.15(토) 9:00, 성김대건 기념관
 주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문의: 꾸르실료, 254-4671

교육 | 모집

9월 가나 강좌
 일시: 9.18(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1인 2만원(당일 접수) 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교구 청년국 17기 청년리더십
 기간: 9.23(금) 19:00~25(일) 17:00
 장소: 성주 무학연수원
 대상: 만 19세 이상 청년(예비신자 가능)
 신청: www.facebook.com/bosmath
 팩스: 255-6690(선착순 30명 마감)

한중친선협회 회원 모집
 동아리(중국어 / 성경, 성가, 회화 등)
 월례회(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친교)
 중국 / 성지순례, 문화탐방, 여행활동
 대상: 중국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010)2662-1560

제대꽃꽂이봉사자 제9기 수강생 모집
 기간: 9.20(화)~10.31(월)
 과정: 초·중급과정 1년 / 고급과정 1년
 전문과정 1년 / 연구과정 1년
 주최: 전례꽃꽂이연구회
 문의: (010)3544-0268

9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일강좌
 일시: 9.24(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사도들의 사도, 마리아 막달레나
 강사: 송창현(미카엘)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대가대 차이나포럼 제24기 원우 모집
 개강: 9.26(월) 19:00(현재 접수중)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석식,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0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채용 | 안내

군위묘원 성묘 안내
 추석 당일에는 많은 성묘객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성묘를 해 주시고, 묘주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교구 관리과로 신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위묘원 관리비(2차분) 납부 안내
 2007.1.1. 이전에 장례를 하신 묘주께서는 묘원관리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미납 시, 무연분묘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03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남정구(마지아)

대구가톨릭대병원 검진센터 이전 오픈
 새롭게 단장한 종합검진센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진실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치: 암센터·장기이식센터 5층
 문의: 650-4114

2016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판매가: 5천 원 / 609쪽
 구입: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결혼명가 노블코리아
 중신 잘하는 집!
 미팅횟수 채움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 053)639-8998
 박옥순(요안나) 영주(젤마)
 동대구역 신세계 부띠끄시티II 드림동 10층 14호

32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한투어 HANTOUR
 성묘발원지(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발칸 성지순례 모객 중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http://www.hantourcatholic.com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페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정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성공회교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번대 맞은편)
 ☎ 053)942-8822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올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주)김스여행
 스페인(산티아고) 5일도보/루르드 14일
 • 출발일: 10월17일 ~ 10월30일
 • 지도신부님 동행합니다.
 ☎ 1544-4655
 대표이사 김천훈(아우구스티노) 김경숙(글로리아)

Rex Diamond
 더렉스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 · 핸드메이드 디자인 가능)
 대표 일 미 순(마리아)
 ♥ 교동쪽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동아주차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